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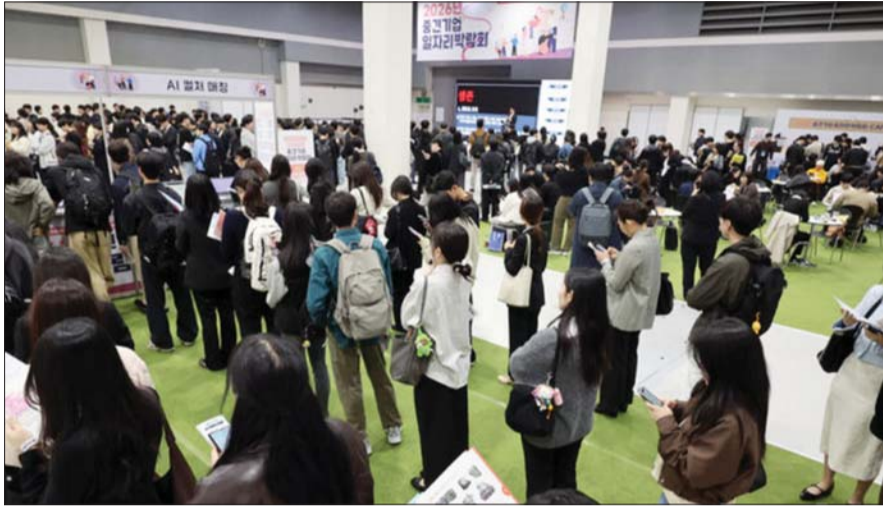
수출 신기록에도 일자리 ‘빨간불’... 노동참여율 OECD 30위

일본은 5위, 격차 10.5%p로 벌어져 상반기 수출 4967억달러 ‘사상 최대’ 반도체 산업, 고용 창출 효과 제한적

한-일 국민의 노동시장참여율 격차가 2010~2020년대를 거치며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지난해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 노동참여율 비교에서 일본이 5위에 오른 반면 한국은 30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OECD가 함께 비교한 비회원국 불가리아·크로아티아보다도 수치가 낮았다.

노동시장참여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일 자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을 가리킨다. 비중을 따지기 때문에 인구의 절대치 또는 인구 감소와는 상관관계가 낫다.

5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한국은 노동참여율 71.8%로, 38개국 평균(74% 안팎 추산)을 밑돌았다. 순위는 29위였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된 미



지난 3월 3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6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뉴시스

국(추정치 74~75%대)을 포함하면 30위로 밀려난다.

일본은 82.3%로 5위를 차지했다. 일본 위로는 아이슬란드(88.1%), 네덜란드(85.7%), 스위스(84.1%), 스웨덴(84.0%)이 각각 1~4위에 자리했다.

이같이 일본은 한국과의 격차를 10.5% 포인트(p)까지 벌렸다. 20년 전인 2005년 말 6.4%p 차(한6.3% 대 일7.7%)에서

10년 전인 2015년 말 7.7%p 차(68.4% 대 76.1%)로 확대된 데 이어 10%p대 차이에 이른 상황.

OECD 집계에 따르면 비회원국인 불가리아(73.5%)와 크로아티아(72.4%)도 지난해 한국(71.8%)에 앞섰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동참여도는 지난 2022년 역대 처음으로 70% 선을 넘어섰으나, 지난 20년 간과 최근 5년 사이 모두 우상향 기울기가

크지 않았다.

2005년도 기준 한국보다 낮았던 폴란드(당시 64.4%)의 경우, 20년이 흐른 2025년에 75.2%로 회원국 평균을 1%p가량 넘어서고 있다. 또 한국과 비슷했던 룩셈부르크도 같은 기간 66.6%에서 74.3%까지 뛰었다.

국내 일자리 전망은 반도체 호황기를 비롯한 역대 최대의 수출, 경기개선세 국면에도 불구하고 밝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간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수출국 순위 세계 5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올해 상반기 수출도 4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에 반해, 올해 5월 국내 15세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만 명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게다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4만 명이 나 줄었다. 이는 2019년 2월 이래로 7년3

개월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고용 부진은 반도체 부문 두각이 무색할 정도로 23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24년 7월부터 내리 후퇴 행진인 데다 감소 폭 또한 올해 4월 5만5000명에서 5월 14만 명으로 불어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노동을 많이 쓰지 않는다. 다른 산업으로의 과급도 작아 고용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KDI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2.1명에 불과하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에 대한 수요가 10억 원 있었을 때 직간접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10억 원어치 수요가 생겨나도 일자리는 고작 2.1개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는 제조업 평균인 6.2명, 전(全)산업 평균인 10.1명에 크게 뒤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소비재, 베트남서 수출 계약 ‘신기록’

산업부·농식품부·코트라·aT 주관 107개사 참여, 3326만 달러 계약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총출동한 한류박람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하노이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한류박람회 역사상 산업부·코트라(뷰티패션·생활용품)와 농식품부·aT(식품)가 공동 주관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박람회는 인구 1억 명에 중위연령 33세라는 고성장 시장이자, 국민의 99.4%가 한국산 제품 소비 경험이 있는 베트남 시장의 특성을 정조준했다. 최근 베트남 내 유통망 환경 변화와 ‘안심·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국내 유통 대기업과 협력사 등 107개사가 총출동했다.

사흘간 진행된 B2B 수출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들과 베트남 및 인근국 바이어 280여 개사가 총 1512건의 밀도 높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만 한류박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농림축산식품부, aT와 7월 2일~4일까지 사흘간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이하 NCC)에서 K컬처와 소비재를 결합한 종합 마케팅 행사인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 B2C 전시판촉전 현장의 모습. /코트라

람회 역대 최대치인 3326만 달러 이상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짜 식품 파동으로 인해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측은 “지난해 연이어 불거진 가짜 식품 파동으로 베트남에서 안심·프리미엄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K-소비재 관심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류박람회는 소비재 기업이 저비용으로 공공기관 및 한류 홍보대사, 유통망 등과 협력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회”라고 설명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능성 화장품 수출기업 A사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브랜드 추격이 매섭지만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유통망들의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제품 및 마케팅 차별화 방향을 정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베트남 현지 바이어 B사 역시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수입 화장품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산일 정도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K뷰티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안전·신뢰도가 높은 K뷰티 기업과 거래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무보, ‘수출성장 플래닛’ 신규 회원사 모집

최대 100억 보증·90% 보험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우량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성장 플래닛(이하 플래닛)’ 프로그램의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래닛은 수출 규모에 따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우량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무보의 대표적인 성장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플래닛 회원사에는 과격적인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최대 100억원 지원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30건 무료 제공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6일~24일까지 공사 비대면 영업점

통해 플래닛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도입 첫해 42개사로 시작한 플래닛 프로그램은 매년 약 20개사 내외를 선발해 왔으며, 올해에도 20여 개사를 신규 선발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선별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오며 따라 1차 선발 배수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에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5급 3특 기반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등 선발 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세계 입맛 잡은 K-푸드... 상반기 수출 최대

70억5000만 달러... 전년비 4.1% ↑

올해 상반기 ‘K푸드+’의 수출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북미와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 수출이 모두 전년대비 10% 넘게 늘어난 실적을 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K푸드+(플러스)’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액은 7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대다.

K푸드+란 신선·가공 농식품을 비롯해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의 농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중 농식품 분야 수출은 53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중동 지역이 25.2%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중남미 19.5%, 유럽(EU+영국) 17.9%, 북미 11.0%, 중화권 9.5%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미국이 최대 농식품 수출국 자리를 지켰다.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3% 증가한 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1억7530만 달러), 과자(1억5010만 달러), 김치(2460만 달러), 배(440만 달러)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중국시장이 2위로, 9.4% 늘어난 8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특히 2억1760만 달러 상당의 라면이 중국에 수출됐다.

전 세계 시장 품목별로 라면 수출(9억4000만 달러)이 27.9%나 늘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한 달여 빠른 7월 중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과자류도 3억9880만 달러(7.2%), 음료 3억5310만 달러(3.1%), 쌀가공식품 1억4980만 달러(7.9%), 아이스크림 7050만 달러(7.7%)로 일제히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신선 농식품 중에선 딸기 6070만 달러(15.9%), 포도 1810만 달러(27.5%), 배 역시 80만 달러(62.3%) 등을 기록하며 높은 수출 실적이 집계됐다. 김치는 상반기 8600만 달러가 수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술 빼앗겨도 침묵... 중기 절반 ‘무대응’

공정위, 불이익 우려에 신고 6.6%

원사업자에게 기술을 탈취당해 재산상 손해를 입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의 절반 이상이 보복 우려와 법적 증명의 한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4년 기술유용 피해를 본 제조업 수급사업자 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쟁조정 의뢰’(14.7%), ‘손해배상 소송’(10.3%) 순이었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답변은 6.6%에 그쳤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침묵하는 이유는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 단절 등 불이익이 두

려운 데다, 기술자료의 유용 여부와 손해액 간의 인과관계를 중소기업이 직접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정위가 위법성을 적발해 대기업을 제재하더라도,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이중고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감시와 직권조사, 피해구제까지 아우르는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제보를 수집하고, 벤처기업협회 등에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피해 기업이 드러나지 않게 제보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힌다.

/세종=한용수 기자